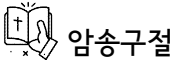


너는 시냇가에

*반주음원QR



암송구절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신 24:18)

트랙터 가정예배 일지

일 시	참석자
기도제목 응답내용	 <p>1907 금촌교회</p>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촌교회

트랙터 가정예배문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24:14~22)



1 함께 찬양하기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 218장)

- 1)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 2)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 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맘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 3)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반주음원QR



2 함께 본문 읽기

신명기 24:14~22

14)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15)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므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16)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17)너는 객이나 고
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18)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19)네
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20)네
가 네 감람나무를 떼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1)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
라 22)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3 함께 생각하기

인도자가 읽어줍니다

마더 테레사(1910~1997, 인도)는 한평생을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1952년에 인도 켈저타 빈민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집’을 창설하여 평생 죽어가는 사람들, 나병환자, 버려진 아이들, 노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이러한 헌신과 공로를 세계가 인정하여 1979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처럼 평생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린 시절 그녀의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유년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녀의 집 문 앞에서 음식을 달라고 구걸하였습니다. 식구들이 먹을 것도 모자랐지만 어머니는 가진 음식의 반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고 있는 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얘들아, 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우리 친척도 아니고, 친한 친구도 아니지만 우리 형제자매들이다. 그들 역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란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날 아이들은 음식은 부족했지만 아주 기쁘고 뿌듯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였습니다.

불쌍한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깨우침이 마더 테레사로 하여금 평생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4 함께 관찰하기

성경 본문을 보며 빈칸을 채웁니다

① 너는 □□에서 □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하신 것을 □□□□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②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을 다시 따지 말고 □과 □□와 □□를 위하여 남겨두라

5 함께 나눠보기

질문에 따라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 ① 살면서 누군가의 호의와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던 경험들이 있다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서로 이야기해봅시다.
- ②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며 살아야 할지 서로 나눠봅시다.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3편의 설교 모음집입니다. 그중 제2설교(신4:44~26장)는 40년 전,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선포할 당시에 너무 어리거나 혹은 태어나지 않아 율법을 듣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에게 율법을 재해석해준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많은 율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한 자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공훈과 자비를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시는 ‘약자보호법’입니다. 하나님은 품꾼,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사람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규례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 돕고 살아가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규례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누림으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며 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값없이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삶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6 함께 기도하기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삶 속에서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